



전승환 레오 | 작가

| 봉사는 모두의 기쁨입니다

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유아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기만 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교회를 위해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몇 년 후 교리교사, 이후 사목부 봉사자로, 최근까지는 서울대교구 청년부 소속으로 교리교사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려 노력했습니다.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늘 어느 곳에 속해 봉사를 했었기에 봉사의 기쁨을 많이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.

하지만 봉사를 해오면서도 늘 '나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'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.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, 봉사자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럴 때마다 내 허영심을 봉사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추고 있었던 건 아녜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하지만 이내 스스로 의도야 어떻든 봉사라는 것을 했으니 난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.

이십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많이 그런 회의감이 들어,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신부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봉사자의 마음가짐으로 죄책감이 든다고, 사람들과의 즐거움을 좇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네가 좇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. 네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일 수가 있다.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. 봉사를 함으로 네가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봉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.”

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봉사만 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니 저는 그저 즐겁게 봉사에 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봉사를 함으로써 나만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봉사란 상대방도 기쁠 수 있고 함께하는 모두가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봉사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. 결국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.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려 노력하면 사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
봉사는 행복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

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나요?

사제가 팔을 벌려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향해있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. 신자들이 손을 합장한 채 기도하는 것이(우리나라에서는) 일반적인 자세지만, 주례 사제가 권하여 다 함께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. 팔을 벌리는 자세는 옆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, “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사항은 아니다. ...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”(2015년 춘계 주교회의)고 단서를 붙였습니다.

글 「교회상식 속풀이」 | 바오로딸 발행